

사회·문화				
1. ①	2. ③	3. ②	4. ④	5. ②
6. ⑤	7. ③	8. ②	9. ②	10. ③
11. ①	12. ⑤	13. ①	14. ④	15. ⑤
16. ④	17. ③	18. ④	19. ②	20. ③

- ①은 사회·문화 현상, ②, ③은 자연 현상이다. ① 사회·문화 현상은 상위 법칙의 지배를 받아 발생한다. ② 자연 현상은 시·공간적 보편성을 갖는다. ③ 개연성은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다. ④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모두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다. ⑤ 자연 현상은 물가치적이다.
- ㄱ는 양적 연구, ㄴ는 질적 연구이다. ③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과 감정 이입을 통해 연구 대상자의 생활 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①, ② 양적 연구는 방법론적 일원론이다. ④ 가설을 세우고 자료 수집·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해가는 과정은 연역적 연구 과정이다. ⑤ 주제 선정, 잠정적 결론 설정, 연구 설계 단계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는 단계이다.
- ② 신뢰도라는 추상적 개념이나 용어를 측정 가능하도록 수치화된 지표로 바꾸어 조사하고 있는데, 이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 조사이다. ① 질문지법은 언어적 도구를 활용한 자료 수집 방법이다. ③, ④ 감의 연구는 신문에 대한 신뢰도를 독립 변수, 신문 구독률을 종속 변수로 설정하였으므로 '신문 구독률이 높을수록 신뢰도도 높은 것이다.'는 감의 가설이 될 수 없다. 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실험법에서 나오는 용어이다. 해당 연구는 질문지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 신문 구독 현황은 (A사만 본다), (B사만 본다), (C사만 본다), (A, B사를 본다), (A, C사를 본다), (B, C사를 본다)와 같이 6가지 경우로 나뉜다. 이 6가지 경우를 모두 더하면 1,000명이다. 따라서 (A, B사를 본다)+(A, C사를 본다)+(B, C사를 본다)=400명이다. 자료에서 A사 총 구독자에서 단독 구독자를 빼면 (A, B사를 본다)+(A, C사를 본다)=200명이므로, (B, C사를 본다)는 200명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B사 총 구독자에서 단독 구독자를 빼면 (A, B사를 본다)+(B, C사를 본다)=300명이므로, (A, C사를 본다)는 100명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구한 값을 통해 (A, B사를 본다)는 100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미시적 관점인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특정 대상의 본질이 대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달라진다고 봄으로써 인간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①, ④, ⑤ 기능론, ③ 갈등론에 대한 설명이다.
- 밀줄 친 '관점'은 사회 실재론에 해당한다. ㄷ, 개개인의 특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회적 특성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사회 실재론에 해당한다. ㄹ, 사회 유기체설에 대한 진술로, 사회 실재론에 해당한다. ㄱ, 사회 명목론의 입장이다. ㄴ, 사회 계약설에 대한 진술로, 사회 계약설은 사회 명목론에 해당한다.
- ③ ◆◆인권 지킴이, 자율 동아리는 모두 선택 의지에 기초해 성립한 사회 집단이므로 이익 사회에 해당한다. ① 진로에 대한 고민은 역할 갈등이 아니다. ② 장손은 귀족 지위, 선생님은 성취 지위이다. ④ ◆◆인권 지킴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행위에 대한 보상이다. ⑤ 진학 지도부는 공식 조직인 학교의 일부이다.
- 주어진 자료는 개방적 태도를 부각시키고 있다. 개방적 태도는 사회·문화 현상이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의 시각과 다른 시각이 공존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 ①은 관료제, ②은 탈관료제이다. ㄱ,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업무의 표준화와 전문

화를 중시한다. ㄷ, 관료제에 비해 탈관료제는 의사 결정 권한을 분산시킴으로써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한다. ㄴ, ㄹ, 관료제, 탈관료제 모두 효율성을 추구하는 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 A는 순환론, B는 진화론이다. ㄴ, 진화론은 서구 사회를 진화된 사회라고 전제한다. ㄷ, 모든 사회가 진보 또는 발전해 나간다고 보는 진화론은 퇴보를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ㄱ, 순환론이 전제하는 순환 과정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므로 단기적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ㄹ, 진화론은 사회가 항상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현재의 사회는 과거의 사회보다 나은 사회임을 강조한다.
- A는 자문화 중심주의, B는 문화 상대주의, C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ㄱ,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의 차이를 발전 수준의 차이로 인식하고, 자기 문화가 가장 발전한 문화라고 본다. ㄷ, 문화 상대주의가 지나칠 경우, 자기 문화나 타 문화가 지닌 문제점을 성찰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 ㄴ, 문화 상대주의는 타 문화의 수용에 적극적인 태도이다. ㄹ, 문화 상대주의가 지배적인 사회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지배적인 사회의 문화를 수용할 수 있으므로 자발적인 문화 접변이 나타날 수 있다.
- ⑤ 재산과 위신 측면에서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은 3명(A, C, D)이고, 재산과 권력 측면에서 계층이 일치하는 사람은 5명(A, B, C, E, F)이다. ① 재산 측면보다 권력 측면의 계층이 높은 사람은 2명(D, G)이다. ② 세 가지 측면에서 계층이 모두 일치하는 사람은 2명(A, C)이다. 이들은 지위 불일치 상태에 있지 않다. ③ 세 가지 측면에서 지위 불일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는 마르크스의 계급론보다 베버의 계층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적합하다. ④ G는 위신 측면이 상층이면서 재산 측면이 하층이다.

13.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아래 표를 작성할 수 있다. (단위: %)

구분	남편		계	
	초혼	재혼		
아내	초혼	65	15	80
	재혼	5	15	20
계	70	30	100	

- 2015년 혼인 건수가 100건이라고 가정하면 혼인한 사람은 200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재혼한 사람은 남편만 재혼인 경우에서 15명, 아내만 재혼인 경우에서 5명, 남편과 아내 모두 재혼인 경우에서 30명(15건×2명)이므로 총 50명이다. 따라서 혼인한 사람 중 재혼한 사람은 25%이다.
- 남편만 재혼인 혼인 건수는 전체 혼인 건수 중 15%이고, 아내만 재혼인 혼인 건수는 전체 혼인 건수 중 5%이다. ③ 아내가 초혼인 혼인 건수(전체 혼인 건수 중 80%)는 아내가 재혼인 혼인 건수(전체 혼인 건수 중 20%)의 4배이다. ④ 남편이 재혼인 혼인 건수 중 아내가 초혼인 혼인 건수와 아내가 재혼인 혼인 건수는 같다. ⑤ 남편과 아내 모두 초혼인 혼인 건수(전체 혼인 건수 중 65%)는 남편과 아내 모두 재혼인 혼인 건수(전체 혼인 건수 중 15%)의 4배를 넘는다.
- 제시된 사례에서는 문화의 공유성이 부각되어 있다. 또한 거래 행위가 갑국 사람들의 돈에 대한 가치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 문화의 전체성이 부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ㄱ,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에 한 사회 구성원 간 원활한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 ㄴ, 문화는 전체성을 갖기 때문에 각 부분이 다른 부분과의 관련 속에서 의미를 갖게 된다. ㄷ, 한 사회가 그들만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회와 구분되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ㄹ, 제시된 사례에는 문화의 축적성이 부각되어 있지 않다.
- ⑤ T+1 시기 이후 갑국에서는 문화 동화, 을국에서

- 는 문화 융합이 나타났는데, 그 시기 이전에 두 국가 모두에서 A국의 종교와 자국의 전통 종교가 나란히 존재하는 현상 즉, 문화 병존이 나타났다.
- 갑국에서는 T+1 시기 이후 문화 동화가 나타났다.
 -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문화 동화는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약할수록 나타나기 쉽다. ③ 을국에서 T+1 시기 이후 나타난 문화 융합은 외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이다. ④ 을국에서 문화 수용자의 외래문화에 대한 재해석과 재구성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 ㄱ, 1980년대 갑국의 하위문화 요소인 A는 갑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이루는 문화 요소이다. ㄴ,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임을 고려하면 A, B 모두를 향유하는 사람보다 A, B 중 B만 향유하는 사람이 많다. ㄷ, 2000년대 B는 하층에서만 나타나는 문화 요소이므로 하층과 다른 계층의 문화적 정체성의 차이를 드러내는 문화 요소이다. ㄹ, 2000년대 A는 전체 문화 요소이므로 하층 사람들도 A를 향유한다.
 - ③ 1970년에는 중위 소득의 50% 금액보다 최저 생계비가 크고, 1990년에는 최저 생계비보다 중위 소득의 50% 금액이 크다. 20년 전 대비 1990년의 최저 생계비 증가율이 20%인데, 중위 소득의 50% 금액 증가율은 최저 생계비의 경우보다 기준(분모)이 되는 금액은 작고, 변화량(분자)은 크므로 중위 소득의 50% 금액의 증가율은 20%보다 크다. 중위 소득의 50% 금액의 증가율과 중위 소득의 증가율은 같다. ① 1970년에는 절대적 빈곤율이 상대적 빈곤율보다 높다. 이는 최저 생계비가 중위 소득의 50% 금액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할 뿐 최저 생계비가 중위 소득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② 1990년에는 상대적 빈곤율이 절대적 빈곤율보다 높다. 이 경우 중위 소득의 50% 금액이 최저 생계비보다 크므로 중위 소득은 최저 생계비의 2배보다 크다. ④ 상대적 빈곤율은 1970년에 20%(24%×10/12), 2010년에 16%(8%×10/5)이므로 2010년보다 1970년이 높다. ⑤ 상대적 빈곤율은 1990년에 20%(16%×10/8), 2010년에 16%(8%×10/5)이다. 상대적 빈곤에만 해당하는 가구는 1990년에 전체 가구 중 4%, 2010년에 8%이다. 총 가구 수가 1990년보다 2010년이 많으므로 상대적 빈곤에만 해당하는 가구 수는 2010년이 1990년의 2배보다 많다.
 - ④ '비금전적인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에 대하여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는 모두 '아니오'에 해당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가?'에 대하여 사회 보험은 '예', 공공 부조는 '아니오'에 해당한다.
 - A는 SNS이고, B, C는 각각 종이 신문과 텔레비전 중 하나이다. ② 종이 신문과 텔레비전은 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수용하는 자가 명확히 구분되지만, SNS는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의 구분이 모호한 편이다.
 - A는 하층, B는 중층, C는 상층이다. 계층별 구성 비율을 비교한 표를 활용하면 자녀 세대에서 상층 20%, 중층 50%, 하층 20%임을 알 수 있다. 부모 세대에서 상층:중층:하층 비율이 4:9:7이고, 합이 20이므로 각 계층 비에 5를 곱하면 상층 20%, 중층 45%, 하층 35%임을 알 수 있다. (단위: %)

구분	부모 계층			계	
	상층(C)	중층(B)	하층(A)		
자녀 계층	상층(C)	10	10	0	20
	중층(B)	5	25	20	50
	하층(A)	5	10	15	30
계	20	45	35	100	

- 부모와 자녀 중 한쪽만 상층인 사례는 전체 사례 중 20%이고, 한쪽만 하층인 사례는 전체 사례 중 35%이다.
- 자녀 세대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사람은 전체 자녀 중 30%이고,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사람은 전체 자녀 중 20%이다. ⑤ 부모 세대의 각 계층에서 자녀와 계층이 일치하는 부모의 비율은 상층이 하층보다 높다.